



가와사키 시 川崎市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뉴스레터

뉴스레터 No.36

편집 · 발행 :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09년 3월 31일 발행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index.htm>

오픈회의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표자회의에 !



2008년 12월 14일 타카즈 시민관에서 오픈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은 강풍 추위비가 내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모이신 일본인 시민과 외국인 시민 약 120명의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주셨습니다.

오픈회의의 목적은 우리 대표자들과 시민간의 교류와 대화를 넓히고, 그들의 시정(市政)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각각 목표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회의에는 전체회의와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과 다문화이해', '의료와 공생생활'의 두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상세한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종료후에는 교류파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친구간의 관계를 깊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장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표자들과 참가자들은 화기애애하게 웃음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파라드 벨페)

🎌 가와사키 시민축제

제 31회 가와사키 시민축제는 11/1~11/3에 개최되었습니다.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는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교류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참가했습니다.



세계에 관한 퀴즈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우리들이 모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정답자들이 많아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퍼포먼스 스테이지에서는 민족의상 체험으로, 우리들이 가져온 각국의 의상을 방문객들에게 입혀 그 의상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날의 국제교류 퍼포먼스 스테이지에서는, 대표자들과 지역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노래와 춤을 선보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자회의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에다 신샤)





대표자회의 심의개요

제 3 회 제 2 일 (11 월 16 일)

□ 교육문화위원회

- 초중학교의 일본어 지도에 대해
시의 일본어 지도 협력자 파견사업의 파견기간과 지역시민들을 어떻게 일본어 지도에 참가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했습니다.
- 고교진학과 고교생활에 대해
대표자들의 지원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동들과 고교진학이나 고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 어른들에게의 일본어지원
시민관 등의 배움교실에서 일본어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장소에 갈 수 없는 어린 외국인 시민들의 일본어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사회생활위원회

- 의료에 대해
가와사키에 사는 외국인 시민을 중심으로 이용하기 쉽고 도움이 될 만한 ‘(가칭)가와사키 외국인 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와사키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와사키구 커뮤니티션 블린티어’의 개요와 일본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의료용어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제 4 회 제 1 일 (1 월 25 일)

□ 교육문화위원회

- 고교진학에 대해
현과 시에서 행하고 있는 시책을 검토하고,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
종합교육센터의 담당직원을 초대하여, 시의 시책이 미치고 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학습지원 등 지역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사회생활위원회

- 의료에 대해
‘(가칭)가와사키 외국인 의료지원시스템’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특히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위원회 가족의 출산과 입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어만으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 환자 본인의 불안감 등, 실제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의사록을 볼 수 있습니다.

★ 2009 년도 연간스케줄 ★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1 회 제 1 일 4 월 19 일 (일) 제 2 일 5 월 10 일 (일)

제 2 회 제 1 일 6 월 14 일 (일) 제 2 일 7 월 12 일 (일)

제 3 회 제 1 일 9 월 27 일 (일) 제 2 일 12 월 20 일 (일)

제 4 회 제 1 일 1 월 24 일 (일) 제 2 일 2 월 21 일 (일)

※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회의 11 월 29 일 장소: 타카즈시민관 시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누구라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표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회의입니다.

오픈회의 여러분의 목소리

오픈회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에서 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시내 각지의 배움교실에서 오픈회의를 소개하여, 그곳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시민들에게도 일본인 시민들에게도 살기 좋은 가와사키를 위해 제언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들에게 일본어지도 뿐만 아니라, 교과지도가 포함된 학습지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아사오구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자와 구의 사업 '다문화 서포트네트 히마와리' 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 학교내에서 학습지원도 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학습지원은 교육의 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다지 중시되고 있지 않은 인상이 있다.
- 일본인은 도시락을 예쁘게 싸는 등, 문화의 차이를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급식이 이루어지면 가족으로서의 안심이다.
- 다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말기가 병원과 약국에 비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일본어의 미묘한 표현 (육신육신 아프다, 따끔따끔 아프다 등) 은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9 번 등에 전화하는 경우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불안하다.
- 의료 뿐만이 아니라 상담 전반에 걸쳐, 여기에 전화를 걸면 되는 다언어 핫라인이 있으면 아주 편리할 것이다.
-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후레아이관과 같은 다문화 공생의 거점이 되는 시설이 각지에 필요하다.
- 다문화 공생사업도 행정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 자치체도 있지만, 가와사키시에서는 현재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 외국인등록법이 변경되는데, 대표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 구청의 창구에 대해 여러분도 고안을 했으면 좋겠다. 나카하라구청에는 다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의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작년부터의 경기문제와 외국인 시민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 등, 2009 년은 여러가지 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홈페이지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kaigi/>) 에 가능한 한 그러한 정보를 많이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소개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 정액 급부금에 대한 알림
- 파견 · 연수생으로 일하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편리메모● 일본어 학습에 대해. 가와사키시에서는 일본어의 일상회화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전 코스와 야간 코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민관이나 교육문화회관, 후레아이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다문화 공생체험

제 2 회

인도네시아의 가위바위보



‘사이쇼와구, 장켄퐁’, 모두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일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위바위보’라 불리며, 영어로는 ‘Rock-Scissor-Paper(바위 - 가위 - 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위바위보와 비슷한 게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과 비해 독특하고 개성적입니다.

우리들은 ‘수이(SUIT)’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모두가 이 놀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말입니다.

수이의 규칙은 거의 일본의 가위바위보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들은 다른 심벌을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미, 코끼리, 사람’입니다. 코끼리는 사람에게 너무나 강하고, 사람은 개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한편 개미는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검지를 세우면 ‘사람’, 엄지를 세우면 ‘코끼리’, 약지를 세우면 ‘개미’가 됩니다.

이 놀이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코끼리와 개미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개미는 작아서 코끼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개미는 코끼리에게 반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개미는 너무 작고 빨라서 코끼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미는 코끼리의 눈을 공격했습니다. 기어코 코끼리는 쓰러지고 개미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하다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부디 한번 수이로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모하마드 어슬리)

다문화의 나라 브라질



브라질은 다양한 나라들의 이민자들이 만든 다문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은 포르투갈인이 들여온 축제가 기원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삼바춤은 아프리카의 리듬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아랍과 이탈리아, 아프리카가 기원인 요리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유럽풍의 거리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일본인이 브라질에 건너온지 100주년 기념의 해였지만, 그 100년간 일본인도 브라질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각각의 민족이 자국의 문화와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오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도시에도 아프리카계와 유럽계, 아시아계 친구들이 많으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18년전에 처음으로 일본에 왔을 때, 주위에 일본인 밖에 없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글로벌 국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가와사키시에 120개국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본도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모리 유리야 미도리)

< 문의 > 가와사키시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川崎市市民・こども局人権・男女共同参画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210-8577 川崎市川崎区宮本町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 감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